

### 한형조

## 무문관 발방

71

### 수산의 죽비①

늦은 나이에 눈을 뜬 그는 수산에서 새 문호를 열었다. 제자에 분양(汾陽)이 있고, 그 아래 자명(慈明)에게서 양기(楊岐)와 황룡(黃龍)의 두 걸물이 탄생했다. 송대의 선택을 이들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풍혈의 우러는 편한 것이 되었다. 수산의 죽비는 그 선풍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수산화상이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보이며 가로되, "너희들, 만일 이것을 죽비라 부르면 '범하는' 것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어디 말해보라. 무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 나 해가 말한다. "죽비라 부르면 '범하는' 것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말을 해서도 안되고 말이 없어도 안된다. 얼른 말해보라. 말해보라."

\* 송허가 가로되, "죽비를 들어올려 죽고 사는 영을 내렸다. 등지고 범하는 것이 어지러이 치달리면, 부처와 조사도 목숨을 구걸할 판."



그림 · 문병성

죽비를 죽비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이게 웬 심술이고 용심인가. 사람들은 우선 그렇게 생각한다. 죽비라고 불러서 안된다면 그럼 대나무 딱딱이라고 부르면 그만이지. 단순한 명칭의 문제로 이리 호들갑을 떨 것이 무엇인가. 대체 이게 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득하고 있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다. "태초에 로고스, 즉 말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보편자의 개념문제가 심각한 논란거리였다. "보편은 개체에 우선하고 영원한가." 이 물음에 대해 '영원하다'고 답해야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을 위한 입지가 선다. 이 신학적 입장을 실재론(實在論, realism)이라고 한다. 이때 '실재한다'란 보편으로서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사물이나 개체는 다만 우연적인 존재일 뿐, 실재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종교적 통념

# 아상이 꿈을 부른다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1



'욕망'이라는 장애물은 흥미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피자, 파스타, 아이스크림 등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참아내려고 하지만 결국 집을 나서게 되고, 그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찾아가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어떤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될

### 수행의 장애 ②

것이다. 그러나 그 느낌, 행복감이랄 수 있는 그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한 입 베어무는 순간부터 우리의 욕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생겨난 욕망을 오래 묵혀두지 못한다. 욕망이 고(苦)라는 사실은 이 과정을 자제히 실행하면 알게 된다. '욕망'은 어떤 과정 혹은 상태가 끝나는 곳에서 분방하게 나타나며, 그 바람을 좇는 자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사실 욕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장애물보다도 친숙하다. 다른 장애물이란 분노, 썬음, 불안, 불신 등이다. 이 네가지 장애물

은 '도피'라는 말로써 갈무리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키면 이 장애물들은 삶은 일이 목전에 닥쳤을 때 생기는 반응이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정직하게 노력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된 감정은 놓

### 삐뚤어 버리자

### 오물이 가득한 컵

### 비워야만 쓸 수 있어

어버려야 한다.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탐·진·치라와 부르는 번뇌들의 표면상 나타난 이름과 모양일 따름이다. 마치 발우를 보고 크다 작다, 예쁘다 하는 것과 같다. 큰 발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발우

든지 작다고 할 것이다. 바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차별을 때 생기는 반응이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정직하게 노력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된 감정은 놓

사람을 결모습으로만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토를 달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존재는 실상 원소들의 결합, 즉 변화하는 집합들의 모임일 뿐이다. 해탈할 마음은 차별심을 내지 않는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물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유·무정물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대해, 수행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품고 있는 의견과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불교와 수학

75

### 불심과 창발

김용운

2월26일 같은 날에 미국 특허국에 '전신에 의해 소리를 전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벨이 시간적으로 좀 빨랐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발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난호 분란에서는 일본 어느 섬의 권승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을 보기가 '창발'에 관해 이야기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자비의 빛을 발할 때가 있음'을 말한다. 불심이 창발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윤리성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창발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큰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몸으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갑자기 중간크기의 지진이 있을 후에 큰 지진이 돌출한다.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발휘할 때를 포함하여 어떤 현상이 창발될 때는 이와 같은 패턴을 취한다. 과학사에도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이 복수의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흥미있는 사례들이 있다. 전화의 발명으로 이름이 높은 A.G. 벨은 잘 알려져 있으나 또 하나의 발명가 E. 그레이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1876년

만약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었다. H.A. 로렌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화론도 다윈과 워레스에 의해 따로따로 생각되었으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한 마이어, 줄, 폴딩 세사람이 동시에 발견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C.G. 옴은 그와 같은 현상이 개인 의 의식과는 별도로 사회, 넓게는 민족, 또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층에

### 작은 일 겹쳐 큰 질서 형성하듯

### 천재·대발명도 동시에 나타나

### 불심 창발되면 사회전체 발전

명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대 발명이란 천재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풀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탄생시킨 영국과 독일은 각 나라의 명예를 걸고 이 발명이 자국 사람에 의해 먼저 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여지를 부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특수상대성이론 역시 아인슈타인

하는 종교혁명의 시기가 있었다. K. 아스퍼스는 그 시기를 추측적으로 이름지었다. 중국에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백가(諸子百家), 회합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합 8현인, 유대의 여러 예언가와 이예스, 특히 인도에는 바라문과 힌두 종교 운동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대에언자가 혼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교적 천재는 민중의 집합적 무의식 속에 있는 윤리적 바람을 끌어내는 성인이며, 그 한사람의 등장에 앞서 여러 명의 종교천재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몸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여러개의 지진과 중간 크기의 지진으로 이어지는 대지진과도 같은 패턴이다.

창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은 일들이 겹치면서 무질서로 보여지던 상황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창발이 되기 전에 속은 여러 개의 공상적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름없는 중생들은 큰 천재와 성인을 등장시키는 예비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역할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을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특히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생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설법아닌 설법은 어떤가”

“인연을 쉬는 죽은 자는 아니 되겠습니다”

종철이 그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임제의 길이 내에 이르러 놓여지려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이십니까.” “충만한 인제는 많은데, 본질을 꿰뚫어본 사람이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네를 눈여겨 보아왔는데, 경전에 탐착하느라 내려놓는(放下) 법을 몰라.” “그럼, 어디 그 비밀을 알려 주십시오.”

이 중세 후기에 돌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과학적 인식이 증가하고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이 득세하는 것이다. 개념의 보편적 성격은 개별적 사물에서 단순히 추상된 무엇으로, 관습이나 약정 이상이 아니라고 오캄(Occam)은 말한다. 이 두 입장 사이의 결전을 보편논쟁이라 부른다.

종철은 당(堂)에 올라 대중을 향해 설법을 시작한다. “세존께서 그 푸른 연꽃같은 눈으로 대중을 둘러보셨다.” 화두는 거기까지였다. 종철은 “어디 말해보라. 여기서 세존은 대저 무엇을 설하셨는가.” 단상 아래에서 듣고 있던 수산은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종철 또한 주정자를 던지며 방으로 돌아갔다. 시종이 종철에게 물었다. “연법화가 어째서 대답도 않고 나가버렸습니까.” “그는 무언가를 알았다.”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수산에게 종철이 물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설법 아닌 설법이 어떤가.” 이 물음에 수산은 이렇게 대답했다. “몸적임에 옛 길을 틀어, 초연한 기를 잃어 떨어지지 않습니다(動容揚去路, 不墮然機).” 수산은 고요에 머물고 인연을 쉬는 죽은 자는 아니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개념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철두철미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변의 절대, 영원의 본질에 대한 관념 또한 미미했다. 더구나 이 세계를 주재하고 있는 초월적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다한 실용 정도로 무심했다. 중국불교 또한 이 전통을 따랐다. 인도불교가 대중적 실용과 정에서 혼합한 다양한 브라만교의 신화적 종교적 제제는 점차 떨어져 나갔다. 대승 가운에서도 반야 공관의 회의주의를 선호하더니 급기야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선을 출범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산은 바로 그 불교적 혁신을 의식하며 개념의 절대적 성격이라는 태도를 비판의 도마 위에 세운 것일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기3호 월간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공표광고입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입후보자 월탄

## 제29대 총무원장 출마에 즈음하여 8대 종책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 고난과 함께 정신적 공황이 극에 달해 민족 고유의 윤리와 가치관이 파괴되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종단적으로는 분열과 대립이 고질화되어 뜻있는 사부대중의 경계를 울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중차대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또한 불교의 동체대비정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일체중생의 고통과 이픔을 함께 하며 더불어 나누는 정신으로 회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납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위로는 중정예화와 원로대덕스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 종도와 더불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대 종책선언은 이러한 소납 월탄의 간절한 발원입니다.

- 종책선언 1**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의 구제와 계도를 선도하겠습니다.
- 종책선언 2** 사부대중의 경계에 귀 기울이고 宗徒를 모시는 正法행정을 펴겠습니다.
- 종책선언 3**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대화합의 개혁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종책선언 4** '작은 총무원'을 지향하여 중무행정을 간소화하고, 본사 및 지역중심의 불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종책선언 5** 원로대덕스님과 종도들의 중무 참여를 과감히 확대하여 실질적인 열린종단을 이룰 것입니다.
- 종책선언 6** 획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승가교육의 전환을 통하여 21세기 불교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 종책선언 7**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 종책선언 8**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의 불교문화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중엄한 선택 종단의 내일을 약속합니다 - 월탄 드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도	이력
1955	회암사에서 정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5	회암사에서 정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6	해인사에서 김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59-63	선원에서 5하인거 상인
1968	동국대 학사 졸업
1969	서울 개운사 주지
1969	조계종 제 4·5·6·8대 중앙종회 의원
1971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장
1973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석사취위
1974	조계사 주지
1974	불교신문사 사장
1975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77	강화 전등사 주지
1978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1983-1992	법주사 주지
1986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1986	평화통일정책 상임자문위원
1988-1992	조계종 제29대 중앙종회 의원
1992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
	[현] 동국대 승가총동문회 회장
1994	[진]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원연구원 이사장
	[현] 동국대 석림동문회 명예회장
1995-98	선원 4하인거 (9하인거 상인)